



박찬익 (주)박이정출판사 대표이사

우리글·문학 '넓고 깊게' 소개하는 종합출판사 학술전자출판조합 근실한 조합으로 성장시킬 것

(주)박이정출판사(대표이사 박찬익)는 국어국문학 전문 출판사로, 1896년 문을 연 이래 1500여종의 국어학, 고전문학 관련 전문서적을 펴냈다. 그중 향가연구, 역대한국문법대계 등은 우리 문학과 국어학 발전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책이다. 박찬익 대표를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박이정출판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박이정출판사는 1989년 7월 20일 '깊이와 넓이'가 있는 책을 만든다는 취지로 창립했습니다. 국문학도로서 한국고전문학에 관심이 많아 국어학과 고전문학 관련 전문서적을 출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판사를 시작,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국어학, 고전문학 관련 전문서적 1500여종을 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출판사에서 법인회사(주)박이정출판사로 거듭났으며, 2015년 설립한 사회과학 연구서와 교재 전문 임프린트 '패러다임북', 아동, 독서, 다문화분야의 책을 출판하고 있는 자회사 '정인출판사'까지(주)박이정출판사는 종합출판사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이정에서 출간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판소리문학전집, 판소리문화사전,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전집, 호남·영남 구전자료집, 역대한국문법대계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출판분야 중에서 인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학문이 가치가 있지만 인간됨을 만드는 데는 인문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물질문명은 풍부하게 누리고 있지만 삶의 질은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이 바로 서야 인간다운 세상이 이뤄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출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면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역대한국문법대계〉는 23년전 처음 발간된 이후 우리글 문법자료에 있어 큰 획을 그은 자료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한국문법대계〉는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출간된 대한민국의 문법자료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1세대 국어학자인 고영근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민수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기획출판하고, 2세대인 최형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호철 고려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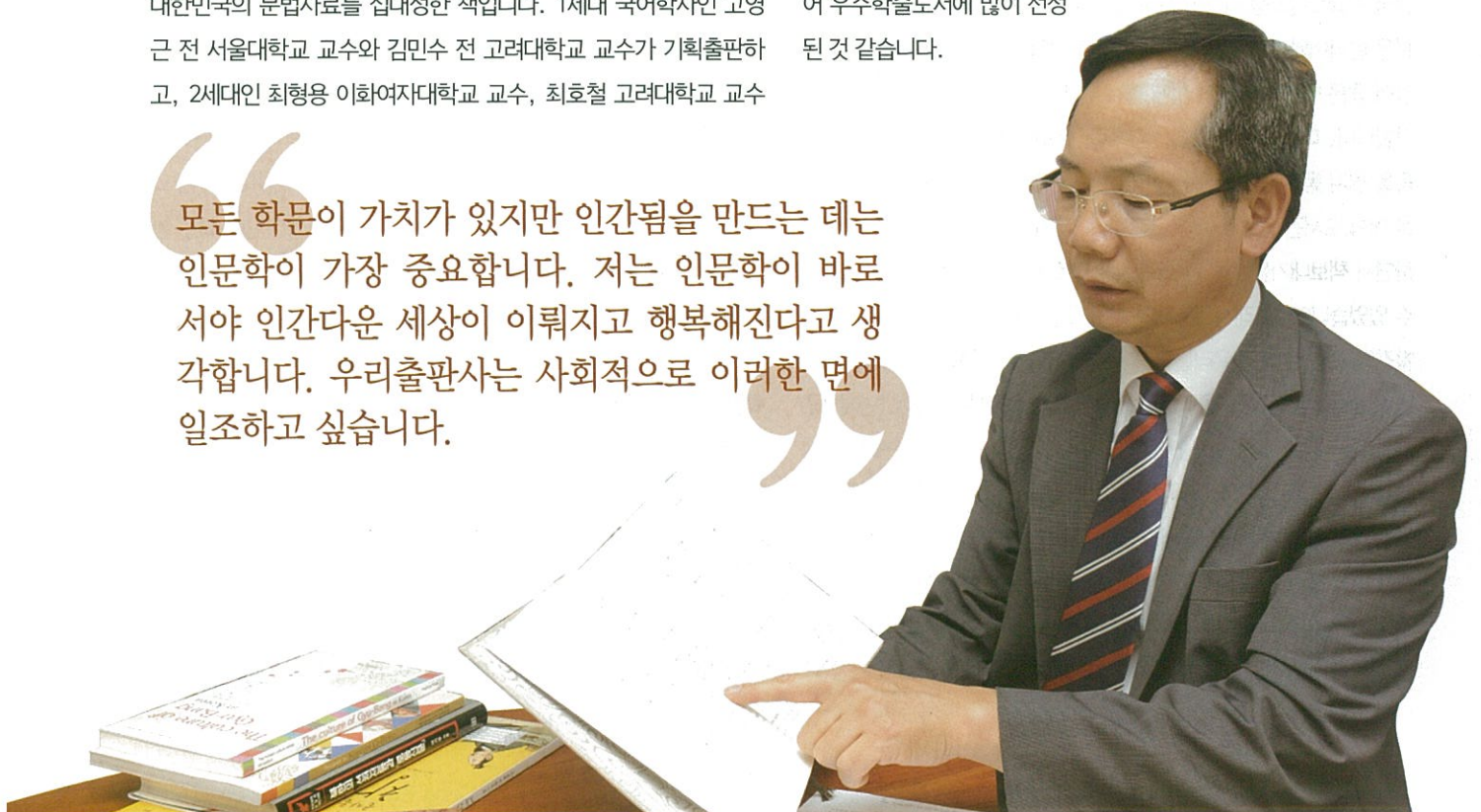
가 합류해 학계의 대를 이은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역대한국문법대계 I〉은 총 102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2008년 박이정에서 제2판을 출간했습니다.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국내외에서 출간된 대한민국의 문법자료를 집대성했으며, 전체 구성을 4부로 나눠 1부는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 2부는 국외에서 발간된 자료, 3부는 맞춤법과 외래어 등 어문관련 자료, 4부는 북한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 1부는 70책, 2부는 61책, 3부는 14책이 발간됐고, 4부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역대한국문법대계 II〉 1차 배본 27권은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간행된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문법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모아 만들었고, 2차 배본 17권은 193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에서 발간된 32책을 17권으로 묶었습니다. 이중 제 46권은 러시아어로 쓰여진 한국문법 책입니다.

발간한 많은 도서들이 정부지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출판사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도서(70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31권), 교과서 수록도서(3권), 전자책 우수도서(5권)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도서가 정부지정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은 우리 출판사가 상업적인 면보다는 학술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고 출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 따라 산업적인 면에 비중을 두어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을 내는 출판사도 있고, 학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에 비중을 두고 양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도 많습니다. 이러한 뜻을 정부가 인정해 주어 우수학술도서로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이 가치가 있지만 인간됨을 만드는 데는 인문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인문학이 바로 서야 인간다운 세상이 이뤄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출판사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면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박찬익 대표이사는 초기에는 세계 각 나라의 대학 도서관 등에 책을 기증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했으며 최근에는 조금씩 결실을 맺어 판권 수출, 책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국어 전도사로 통할 만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책들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글로벌화를 지향한 지 오래됐습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근본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화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좋은 책을 세계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MBC, 문화부와 함께 해외책보내기운동을 펼쳐 동남아, 동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책들을 대학 도서관 등에 기증해 왔습니다. 제가 출협 상무이사를 2번 역임하면서 책보내기운동을 진행했는데, 아주 의미있는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출판사가 고전문학과 국어학 전문 서적을 발간하고 있는 만큼 우리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문화를 대표하는 책을 세계 여러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1년에 2곳을 선정해 책을 기증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의 연변대학, 상해외대, 상학원, 복단대, 곡부사범대, 중앙민족대, 대련민족대, 베트남의 호치민 한인학교, 남미 멕시코 한국문화원 등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수가 이미 1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

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언어와 문화 뿐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정인출판사'에서는 '색동다리 다문화 시리즈'로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 나라의 이야기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 14권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엄마나라 이해하기, 아빠나라(한국) 이해하기, 엄마와 아빠나라 문화 비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있다면 무엇인가요?

1989년 28살의 나이에 겁 없이 출판계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일과 어려운 일에 마주하게 되고 이를 판단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1500여종의 책을 만드는 동안 제작이 끝난 책이 잘못돼 살을 에듯이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협력업체, 저자, 직원과의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이 많아서 인지 26년이라는 출판인생에서 아직 크게 척을 지고 사는 일은 없으니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또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최근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미국에서 열린 도서관 사서대회에 참가했는데 세계의 명문대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대학, 콜롬비아대학, 프린스턴대학은 물론 미 의회 도서관에도 우리출판사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흐뭇했고,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소개되고 있는 박이정출판사의 책은 무엇인가요?

주로 한국학에 관한 책입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세계 각 나라의 대학 도서관 등에 책을 기증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 최근 판권 수출, 책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에 판권을 판 책은 부사사전, 한국어 기초어휘, 한국어교육능력시험,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춘향전의 통시적 연구, 춘향전과 한국문화 등 20여종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영어, 중국어로 된 책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해외 학자들이 연구하는 한국학 연구 결과물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해 '해외한국학총서' 60여권을 발간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으로 학술전자출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시대 상황에 맞게 출판도 점점 변화해야 합니다. 학술서적은 본래 수요가 많지 않은 책이지만 그나마도 최근에는 학생 수도 줄고 취업을 우선하는 대학문화에 따라 실용학문 위주의 책이 팔리고, 인문서는 잘 팔리지 않아 초판도 500부 이하를 출판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출판사와 같은 인문출판사에서는 새로운 출판시장을 개척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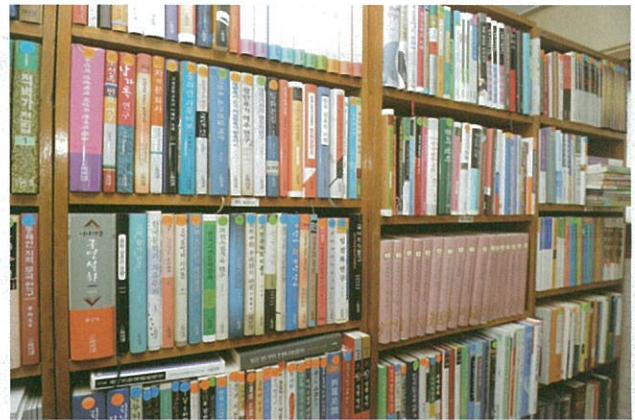
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을 학술자료를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것과 세계시장에 우리 책을 수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유명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 일반 책자를 수출하는 것보다 다국어책과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출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출판사로부터 출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술출판사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전자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동참하지 않는 출판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모아 전자책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사와 회원사 7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공해 그 결과를 조합원사에게 돌려주고, 많은 출판사를 동참시켜 근실한 조합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술도서 전자책 서비스 '아카디피아(www.academia.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디피아는 연구 활동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기로 통합관리 가능, 본문 검색 및 인쇄 기능, 웹표준화와 편리한 뷰어, 다양한 모바일 기기 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읽기 좋은 가을입니다. 인쇄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요?

독서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책을 읽기에 바쁩니다. 인쇄업계도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크고 여유 있게 보려면 자신이 왜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올 가을에는 한권의 명상록이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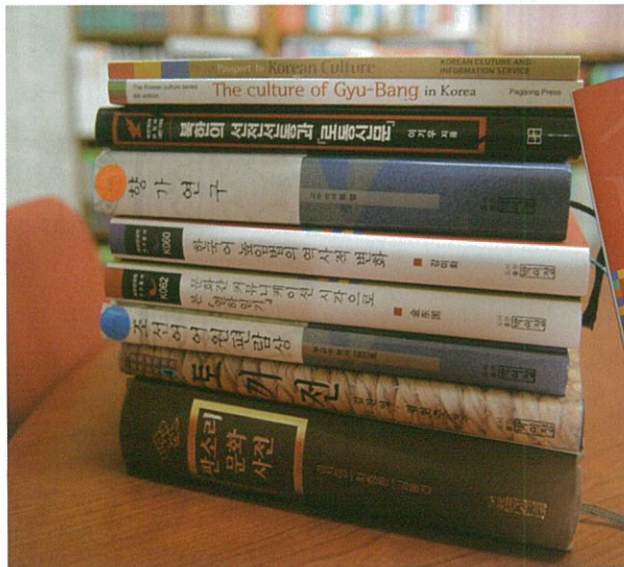
사옥 2층에 진열돼 있는 박이정출판사 발간서

집을 읽는 여유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비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출판을 하고 있지만 인쇄, 제지, 제책은 책을 만드는 가장 기본요사이면서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한국인쇄학회와 한국출판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판계의 여러 업무를 맡아 해보았지만 의외로 교류가 없습니다. 출판계와 관련업계가 서로 교류하는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서로가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눌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이정'에서는 어문학 출판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의 권위 있는 학술서적과 교재를 개발하고, '패러다임북'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서와 교재를 출간하는 '출판분야의 다양화', 아카디피아 설립회원사로서 연내 500종의 전자책을 구비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동영상 강의 자료로 개발하는 '디지털 영역 강화', 해외한국학총서 발간과 출판물 및 판권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이정에서 출간한 다양한 책들.